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발신 : 참여연대(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내용 : 장애아동, 일반아동 통합교육을 위한 '어깨동무 놀이 한마당' 보도자료

'어깨동무 놀이 한마당' 보도자료

참여연대 : TEL)796-8364/ FAX)793-4745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 TEL)521-5364/ FAX)584-7701

○ 오늘 4월 15일 오후 2시에 서울 簫洞국민학교 교정(종로구 소재)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金聖在)와 참여연대(공동대표 洪性宇·金重培·吳在植) 주최로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통합교육의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된 놀이한마당은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어우러져서 서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 동등한 주체임을 인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 金正烈(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장)

1부-기념식

- 행사의 의의와 일정 소개(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金聖在 이사장)
- 축사(재동국민학교 蘇正子 교장)
- 통합교육 선언문 낭독(장애인아동과 일반아동 각 1명)

2부-어깨동무 놀이 한마당

- 내동놀이(세박자 콩콩콩, 인간줄다리기, 찍짓기)
- 부분놀이(여왕벌 닭싸움, 어깨동무, 꽃따기 등)

3부-시상식 및 폐회식

- 격려사(徐相穆 보건복지부 장관)
- 시상식
- 폐회사(참여연대 洪性宇 공동대표)

【참고자료】

1. 차별에 반대하는 의미로서 통합교육이념

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의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이념의 하나이다. 통합교육은 교육철학의 기본원리로서 '차별'적 의식을 넘어선 '평등'한 교육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통합교육의 원리는 장애인의 교육에서보다 서구의 여성차별, 인종차별 혹은 소수민족 차별에 반대해서 출발한 개념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통합교육은 단순히 평등한 교육의 기회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없었던 장애인에게 당당한 삶의 권리 즉 평등한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흔히들 장애인에게 있어서 통합교육을 장애인이 일방적으로 비장애인 사회에 적응해가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통합교육이 남성의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남성 중심의 잘못된 사회체제를 평등하고 정의롭게 변화시켜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의 세계 속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흡수통합의 원리가 아니다. 진정한 통합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똑같이 서로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93년 1월)은 24만3천여명이나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수는 4만9천여명으로서 약 2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나마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은 특수학교에 2만여명, 그리고 특수학급에는 2만8천여명으로 나머지 1천여명이 일반학교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실태는 금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같은 실태는 그동안 법·제도 안에서 조차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가 차단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특히 부모로 부터 버려져서 시설내에 수용되어 있는 장애아동은 대부분 그안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이들의 정상적인 교육권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2. 장애아동 조기의무교육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은 반드시 의무교육이 되어야 한다. 장애발견 즉시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받으면 장애극복과 교육의 실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 외국에서는 0세 즉, 장애 발견때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장애아동이 조기교육을 받게 되면 그중 약 30%가 국민학교에서 일반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즉, 장애아동이 장애발견 즉시 교육을 받게 되면 장애를 극복하게되고 이를 토대로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조기교육은 사회통합을 이루는 기초교육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6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약 1만 3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장애아동의 조기의무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년간 약 300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이 조기 교육을 받고 난 이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간다면 그만한 예산은 충분한 투자가 치가 있다.